청년 일자리 사업·고용위기지역 목포·영암에 중점 투입

광주·전남 정부 추경예산 1080억 어디에 쓰이니

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21일 약 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. 추 경예산에는 지역 현안 사업비로 광주 159 억원, 전남 921억원이 각각 반영됐다.

이날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3조8317억원으로, 청년 일 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숨통이 트이 게 됐다.

정부는 이날 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했으며, 추경 재원 은 빠르면 22일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. 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

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재부 2 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 다. '신속성'이 생명인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45일 만에 통과돼 이미 시간이 많이 지 연됐기 때문에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 다는 것이다.

이번에 통과된 정부 추경안을 분야별로 보면,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(SOC)이 906억원, 보건·복지·고용은 817억원, 연 구개발(R&D)은 588억원 각각 순증됐다. 반면에 교육은 425억원, 일반·지방행정 300억원, 환경 43억원, 외교통일은 14억원 각각 순감됐다. 사업별로는 국회 심사과 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중소기 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 삭감됐다.

◇광주시=일자리 사업 등 모두 11건의 사업에 159억900만원을 확보했다. 분야별 로 일자리 사업 8건에 31억6000만원,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 25억4000만원, 강진~광 주 고속도로 개설 100억원, 창업기업 성장 지원센터 건립 2억원 등이다.

청년창업·취업 등 역점 지원 강진~광주 고속도로 100억 남해안 철도 건설 100억 반영

일자리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마을기업 청년참여자 인건비 지원 3억6000만원, 청 년창업·청년취업 윈윈 프로젝트 6억7500 만원, 청년드림 13억1000만원, 청년과 더 불어 일자리 지원 3억원,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억원 등이다.

◇전남도=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 업에 100억원, 희망근로 지원 19억원, 인 력양성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사업 1억 원 등이 반영됐다. 또 조선업 불황으로 극 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목포시·영암 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 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

고용위기지역 예산은 100ft급 대형요트 개발 49억원, 지역투자촉진 37억원, 항만 시설 유지보수 36억원,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0억원, 조선업 비즈니스센 터 구축 운영 16억원, 레저선박 부품·기자 재 고급화 기술 14억원 등이다.

이밖에 목포·영암지역 사업주는 고용 유지지원금,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 려금,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. 특히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 인은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 근로자는 훈 련연장급여,취업촉진수당,직업훈련생계 비 지원 확대,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받 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

丁의장-여야 원내대표 마지막 회동

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·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원내대표들 을 부르고 있다.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,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, 정세균 국회의장, 자유한국당 김성태, 평화와 정 의 노회찬 원내대표.

지역 주요 SOC 예산으로는 광주~완 도(1단계)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, 남해안 철도 건설 100억원,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원, 항구적 가뭄대책 해소를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(영산강 Ⅲ지구) 80 억원, 신안 압해~암태 새천년대교 건설 60억원,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2억원,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22억 원, 오시아노 관광단지 16억원, 배수개선 사업 11억원, 어류 등 서식장 조성사업 8

억원,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6억원 등을 추가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이 트였다.

전남도 관계자는 "이번 추경에 전남 현 안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"며 "광주·전남 지역 예결위원 및 의원 면담, 지역 국회의 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등 전남도의 총력 대응이 주효한 것 같다"고 말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광주시의원 10명중 7~8명 물갈이

$6 \cdot 13$ 지방선거 재적의원 22명 중 6명만 재도전

74% 초선으로 채워질 듯

6·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70% 이상이 물갈이될 전망이 다.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 고, 옛국민의당의 분당에 따라 출마를 접은 사례도 늘었다.

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의 회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6월 지방선거 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의원은 최대 6명(27.2%)에 불과하다.

더불어민주당 반재신(북구1), 김동 찬(북구5), 김용집(남구1), 민주평화당 박춘수(남구3), 문태환(광산2), 바른미 래당 김옥자(광산5), 민중당 이미옥(광 산2) 의원 등 7명이 출마한 가운데 광산 2 에서는 현역 2명이 맞붙는다.

앞서 민주당 주경님 의원과 평화당 유정심 의원은 각각 서구4 선거구와 여 성 비례대표에 도전했으나 모두 고배 를 마셨다.

제8대 의회에 새로 입성할 초선(연속

선수 기준)은 17명으로 전체 74%에 이

이는 선거구 조정으로 1명(광산5)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비율이다. 7대 의 회 초선 비율(68%)보다 더욱 높아졌다. 7대 의회에서는 재선 7명, 초선은 이보 다 갑절 많은 15명이었다.

올해 광주시의원에 출마한 현직 시 의원 7명은 모두 초선이어서, 3선 의원 탄생은 사실상 물 건너가 재선 의장, 초 선 부의장, 초선 상임위원장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.

시의회 한 관계자는 "전문성과 경륜 부족이 걱정되지만 젊은 의원 도전자 가 많아 의회에 활기가 넘칠 것"이라고

한편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래 3선 의원은 모두 9명 탄생했다. 안성례, 이춘범, 김명민, 전갑길, 신이섭, 반명 환, 김후진, 손재홍, 나종천 의원 등이 다. 이 가운데 이춘범, 반명환 의원은 의장을 역임했다. 재선 의원은 28명, 초

선은 73명 배출됐다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與, 대통령 발의 개헌안 24일 국회 표결 처리키로

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도 요구…야당은 개헌안 철회 요청

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.

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결 여부 역시 국회가 판단 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게 여권의 입 장이다. 야당이 요구하는 개헌안 철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.

이와 관련,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 일 기자간담회에서 "국회가 24일 대통령

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헌"이라고 말한 데 이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"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로 이어진다"고 강조했다.

민주당은 또 같은 날 20대 국회 후반 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 을 요구하고 있다. 현행 국회법은 국회 의장단 임기 만료(5월 29일) 5일 전 새 의 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. 즉 개헌 안에 대한 표결은 헌법, 국회의장단 선 출은 국회법에 따라 시한 내 이뤄져야

윤관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 "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, 그동안 국 회가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이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했다"며 개헌안 의결 및 국 회의장 선출은 여야 간 합의 대상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.

다만, 여야 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.

또 '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

한다는 것으로,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 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게 민주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처리 문제도 상황이다.

>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충돌할 경우 더 중요한 안건 처리가 어려 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.

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한 입장 도 감지되고 있다. 당 관계자는 "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 문제는 야당의 분위기를 봐가며 좀더 당내에서 논의를 할 것"이라 고 말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

399,000원~ ▲▲중중 방콕/파타야 5일,6일 현지지불 가이드+기사경비 \$40~ 선택경비 있음

운항일 수요일,목요일,토요일 3박 5일

토요일,일요일 4박 6일

#코끼리트래킹 #발마사지 #다이나믹 여행지



699,000원~ AVPF13 다낭/호이안/후에 4일,5일 현지지불 가이드+기사경비 \$40~ 선택경비 있음 **운항일**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#4성급호텔 #투본강투어 #후에전동카





⑤PF01 호사카/교토/나라 3일,4일 현지지불 가이드+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,금요일 2박 3일 월,목,금,일요일 3박 4일 #사슴공원 #알찬관광일정 #다양한 특식



堺무=10 북해도(홋카이도) 5일 현지지불 가이드+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**운항일** 7월 18일~8월 17일 (총 18회) #라벤더천국 후라노 #노보리벳츠 온천



ERPF01 블라디보스톡 5일,6일 현지지불 가이드+기사경비 \$40~ 선택경비 있음 **운항일** 3박 5일 7/26, 8/2, 8/9 4박 6일 7/29, 8/5 #가장 가까운 유럽 #유럽풍의 노란건물들



329,000원~ 조중에 상해/항주/주가각 4일,5일 현지지불 가이드+기사경비 \$40~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#상해야경#동양의 베니스 #주가각 뱃놀이



^{CNPF87} 울란바타르/테를지 5일 현지지불 가이드+기사경비 \$40~ 선택경비 있음 **운항일** 3박 5일 7/28, 8/6, 8/10, 8/14, 8/18 4박 6일 8/1 #별이 쏟아지는 몽골 밤하늘 #푸른초원#게르숙박



안심결제 캠페인 | 🧱 Fair Price 공정한 가격, 즐거운 여행 | 🛃 단체맞춤여행 인증제

#6월 30일부터 취항시작 #동남아 대표휴양지

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)228-1199

■[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] 유류활증료, 공항이용료, 전쟁보험료, 관광진흥개발기금, 운송/숙박/식사요금, 여행자보험료,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다. 개발여행상품은 미적용) ■ [유류활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,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. ■[가이드경비]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(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.hanatour.com 참조) ■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. ■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─1993─6 (종로구정)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(주)하나투어 ■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/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/교통편 항공/버스/웨리(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) ■고객칭찬/불편접수 Tel. 1577-1233(ARS 안내번호 인번) ■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※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의 상품의 성품가격에는 유류활증로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, 알뱅햏할 수 있으며,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.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hanatour.com) 참조,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| ●여행 유의 ●여행 자제 ●철수 권고 ●여행 금지 |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[광주충장점]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(주)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.